



3면

기재부 예산실간부들도 주요사업 현장 방문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2년 10월 13일 목요일 (음 9월 18일) 제3117호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도 소상공 민생회복 금융지원 효과 '톡톡'

단기 고·중금리 대출 이용 사업자 장기 저금리로 대환 200억원 출연, 전북신보서 2500억원 규모 보증 지원

전북도(도지사 김관영)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민생회복 금융지원' 사업이 고금리시대에 소상공인들의 금융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소상공인 민생회복 금융지원' 사업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전북신용보증재단은 하루에 50~100건에 이르는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 소상공인 지원 금융정책이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사업 신청을 고민하고 있던 소상공인들도 사업이 조기 종료되기 전에 신청을 서두르는 분위기다.

전북도의 '소상공인 민생회복 금융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상황과 고(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금융부담 경감 및 경쟁력 강화와 사업재기 지원을 위한 자금 공급에 중점을 둔 정책이다.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과 저금리 대환보증을 주된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의 신용상 불이익 조치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내용 중 2000억 원 지원규모로 운영중인 민생회복 응급구조 119'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고·중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에게 특히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기존 대출을 장기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환기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은 이 사업을 통

해 보다 안정적인 사업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신용보증재단 보증 대출 사업자는 기존 보증 범위 내에서 저금리로 대환보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보증없이 대출을 받은 사업자는 최대 2000만원 한도 내 대환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1%의 이자를 지원하고 연이율 약 4%대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해 정부의 대환대출 정책에 비해서도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동욱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전북 소상공인들에게 금융부담 경감 혜택을 위한 자금 공급에 중점을 둔 정책이다. 기존 대출이 진행될 계획이다"면서, "지원대상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들에 개별 문자발송, 유선전화 등 홍보방법을 다양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금융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특례보증 신청은 전북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관할지점에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북신용보증재단 영업점(063-230-333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수 기자

지역 향토기업 최초 아태 마스터스 공식 후원 참여

전주페이퍼, 조직위와 협약 김관영 지사 "성공 개최로 재도약 계기 만들 것" 김경식 공장장 "전북도 국제적 위상 갖추게 될 것"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는 12일 전북도청 4층 회의실에서 전주페이퍼와 대회 공식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

(주)전주페이퍼(대표이사 사장 장만천)가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의 공식 후원사로 참여한다. 대회의 성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12일 전북도청 4층 회의실에서 (주)전주페이퍼와 대회 공식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관영 조직위원장, 김경식 (주)전주페이퍼 전주 공장장, 이강오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협약을 체결하고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주)전주페이퍼는 2023년 6월 30일까지 대회 공식 후원사로 함께하게 되며 후원 규모에 따라 주요 권리가 제공될 예정이다.

조직위원회는 (주)전주페이퍼에 공식 서포터(Official Supporter)의 지위를 부여하고, 대회 지적재산권인 심

볼마크, 마스코트 및 공식 후원사 명칭 사용권, 미디어 및 공식 인쇄물 광고권, 대회를 연계한 마케팅 권리를 갖게 된다.

(주)전주페이퍼는 도내 기업 중 처음으로 대회 공식 후원사로 참여한 만큼 앞으로 조직위원회에서 대회 공식 후원사를 모집하는데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관영 조직위원장은 "지역 대표

기업이자 지역에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지원해 온 (주)전주페이퍼가 도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공식 후원사로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가 성공한 대회가 되고 전라북도가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주)전주페이퍼 김경식 공장장은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로 전라북도가 국제적 위상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허전한 행사에 조금이나마 일조할 수 있어 영광이고, 이번 대회가 어느 대회보다 성공적이길 기대하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내년 개최 새만금잼버리 공식 주제가 발표... 오늘 오후 공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국회의원 김윤덕, 이하 조직위원회)는 '제25회 세계 스카우트잼버리'의 공식 주제가(Jamboree Anthem Korea>Welcome to the Scout Jamboree)를 10월 13일 오후 6시에 각종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에 공개한다.

공식 주제는 스카우트 출신으로 잼버리에 대한 애정과 이해가 높은 DJ

처리(보명 신철)가 총괄 책임을 맡았고, 박선주 작곡에 이승호와 장연선의 가사를 얹어 완성됐으며 떠오르는 신인 남자 아이돌(오메가엑스)과 여자 아이돌(버가부)은 목소리로 참여했다. 주제는 잼버리 참가자인 청소년들의 취향을 고려, 전 세계의 인기를 얻고 있는 K-pop 형식을 취하면서 외국인들에게 친숙한 씬비행식을 접목했다. /김경수 기자

웅치전적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된다

문화재청 사적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 통과... 30일간 지정 예고

12일 문화재청 사적분과 문화재위원회에서 임진왜란 웅치전적지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30일간 지정예고후, 사적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1592년 7월 8일 벌어진 웅치전투는 '학무호남 시무곡'의 어원이 되는 전투로 실질적 임진왜란 최초 육상전의 승전이며, 항후 조선의 임란 극복에 중추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간 전북도는 웅치전투 사적지정을

위해 관련 정밀지표조사 및 발굴조사(2017~2019)와 웅치전투 관련 문헌 및 구전조사(2018~2020) 그리고 관련 사적지정 연구용역(2021)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2021년 10월 문화재청에 사적지정을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2022년 7월 제1차 사적지정 문화재위원회에서 웅치전투의 역사적 가치는 인정되나, 문화재 지정구역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 보완 및 문화재 지

정구역의 합리적 결정에 미흡하다는 이유로 보류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이에 전라북도는 노영구(국방대학교 교수) 등 관련 전문가 6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정신청 자료를 재검토하고 관련 고문헌을 새롭게 정리하는 노력을 경주하여 김수·김정 관련 사헌 김씨 신자료를 확보하였고, 이 기록을 통해 웅치전투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건지봉'의 기록을 확인하게 됨에 따라 웅치전투 실제전투지를 고증하게 되었다.

또한 향토사학자 이용업 위원의 도

움을 받아 웅치전투 관련 구전지료를 추적한 결과 웅치전투와 관련한 구전지료를 11군대를 확인하고 이를 도식화함에 따라 구체적 문화재 구역을 설정하게되어 제1차 문화재청 보류의견을 보완하게 되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이번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서 사적으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다.

전선미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웅치전투가 사적으로 지정된 것은 그간 반복하던 진안과 완주 군민의 봉건 화합에 대한 보답"이라고 말하면서 "향후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에 어울리는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보존·정비 및 선양사업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경수 기자



전북권 4대도시로응비하는 김제



건강하고 활기찬 사람 중심 인구성장 초석마련



김제시